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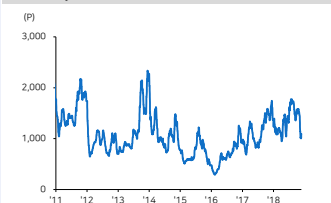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371.9	16.5	135,500	-0.7	16.3	12.9	41.2	3.6	-50.0	0.7	0.8	-0.2	1.8
현대중공업지주	6,441.4	20.5	395,500	-0.5	16.2	2.3	3.8	4.6	8.5	0.8	0.7	9.5	10.2
현대건설기계	280.7	4.4	27,500	0.4	-6.9	-9.8	-51.9	24.0	-6.9	0.5	0.6	1.5	5.8
현대건설기계	478.5	6.3	48,450	2.5	6.7	-18.5	-42.9	12.6	11.1	0.8	0.8	9.8	9.9
삼성중공업	4,693.5	17.9	7,450	0.3	10.7	4.2	15.2	-9.7	-10.8	0.5	0.7	-1.1	1.0
대우조선해양	3,634.3	11.4	33,900	-2.0	24.2	19.0	143.9	4.6	8.6	1.1	0.9	7.6	6.9
현대미포조선	2,140.0	9.2	107,000	-1.8	19.2	7.1	36.0	4.9	17.7	1.0	0.9	4.0	4.8
한진중공업	181.3	6.1	1,710	-2.6	-0.6	-34.1	-48.3	-0.7	-14.6	0.3	0.5	-45.7	-422.3
현대엘리베이터	2,504.0	21.8	92,200	2.3	20.8	5.0	69.5	24.3	-116.1	2.7	2.6	8.1	9.8
두산밥캣	3,553.8	25.3	35,450	1.1	2.2	1.9	-1.0	13.0	12.6	1.0	1.0	8.3	8.6
현대로템	2,265.3	1.8	26,650	1.5	28.4	-0.4	42.1	-47.8	-81.3	1.7	1.7	3.5	5.6
하이룩코리아	238.9	47.8	17,550	-0.6	-32.2	-26.4	-22.0	10.2	19.2	0.7	0.7	4.5	5.5
성광벤드	306.0	15.5	10,700	-1.8	-16.7	-8.9	7.2	-18.8	-124.5	0.7	0.7	1.1	2.4
태광	312.7	12.3	11,800	1.3	-12.9	-11.6	-2.1	-19.3	26.6	0.7	0.7	3.1	3.7
두산중공업	1,358.9	14.3	11,600	-2.9	8.9	-23.2	-24.4	-4.7	-47.4	0.4	0.4	5.9	6.6
두산인프라코어	1,742.3	20.1	8,370	-0.4	1.5	-15.8	-3.7	11.7	5.7	1.1	0.9	12.8	12.2
HSD엔진	146.3	3.7	4,440	-0.7	10.6	17.3	27.4	-29.8	-11.3	0.6	0.7	-5.8	4.0
한국항공우주산업	3,114.3	12.1	31,950	-1.1	10.6	-21.3	-32.7	-13.2	33.5	2.7	2.8	12.1	13.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99.1	14.1	32,650	-3.1	13.8	26.3	-8.2	-35.7	110.0	0.8	0.8	3.0	4.7
UG넥스원	805.2	9.1	36,600	-2.5	25.3	5.6	-38.8	-93.3	59.4	1.3	1.3	6.5	9.2
태웅	218.1	5.2	10,900	-2.2	3.8	-30.6	-43.7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19.1	4.7	8,120	-1.0	18.5	8.1	60.8	-7.1	-46.4	2.5	2.8	6.4	13.0
한국카본	312.1	13.7	7,100	-0.3	10.9	10.9	32.5	419.4	390.2	0.9	1.0	4.1	5.7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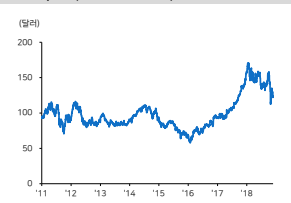
##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49 1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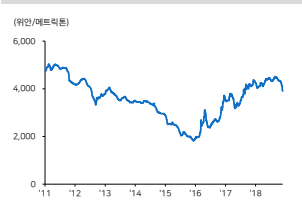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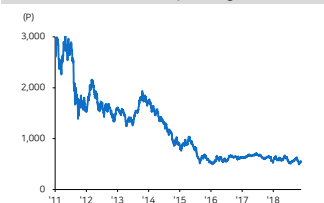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 -0.54 130.23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FSRU deals in sight for Hoegh

노르웨이 Hoegh LNG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스수요에 대응해, FSRU 4기를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영할 계획임. 계약이 체결되면 2020~21년부터 운영될 계획임. 중국은 올해 1~9월간 LNG 3,770만톤을 수입했고, 이는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한 수치로 알려짐. (Upstream)

## Diamond S fixes scrubber-fitted suezmaxes at premium rates

Diamond S Shipping의 스크러버 장착 Suezmax급 탱커가 용선료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알려짐. Diamond는 2016년에 건조된 15.7만DWT급 탱커 용선계약을 BP와 하루 2.7만달러에 체결함. 이는 프리미엄이 붙은 용선료로, Braemar ACM에 따르면 비슷한 선형의 선박은 약 26.0% 프리미엄이 부여됨. (TradeWinds)

## '벼랑 끝' 중견조선 3분기 한곳 빼고 주주장부 '뒀다'

수출임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한조선만 유일하게 일감을 확보했다고 알려짐. 대한조선은 아프라막스, 수에즈막스 등 탱커 8척을 주주했으니, 타 중견조선 기업은 주주가 전무함. 국내 중견조선사의 주주점유율은 2007년 18%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 6%, 2018년 9월 기준 4.3%를 기록함. (코리아워링가제트)

## 삼강에스앤씨, 1500만달러 규모 스크러버 턴키 공급계약

삼강엔지니어링 자회사 삼강에스앤씨는 이스라엘 XT홀딩스와 1,500만달러 규모 스크러버 턴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삼강에스앤씨는 고성조선소에서 제작한 하이브리드 타입 스크러버를 중소형 컨테이너선(8,800TEU급) 3척에 장착해 납품할 예정으로 알려짐. (EBN)

## IOG delays FID on North Sea project

영국 Independent Oil & Gas(IOG)는 최근 유가 변동성 확대와 보수적인 자본시장 환경에 따라 북해에서 개발 프로젝트 FID(최종투자결정)가 지연되었다고 밝힘. 해당 프로젝트 매장량은 약 30.2BCM 규모 Gas Hub임. IOG는 상황이 안정화되면 2019년 초까지 자금조달 후 다시 FID를 진행할 계획임. (Upstream)

##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주식 430만주 매각...1500억 규모

두산인프라코어는 보유하고 있던 두산밥캣 주식 430만주 매각을 공시함. 매각규모는 1,524억원이 될 예정이며, 30일 증권시장 개장 전에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주식을 처분할 계획을 밝힘. 처분목적은 두산인프라코어 재무건전성 강화로, 매각후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율은 55.3%에서 51.1%로 감소함. (뉴스1)

## 조선 방산 주주, 2019년 순항할까

정부는 올해 11월 중순부터 3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선박 건조시 보증부담을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힘.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함정 사업에 대해 기성제도를 적용해 기존의 100% 보증부담을 앞으로는 50%로 완화할 계획임. 2019년 방위사업청 발주는 3조원 규모 함정사업을 포함해 수조원 규모로 예상됨. (EBN)

## 현대상선 "2020년 흑자전환"...경영정상화 우려 반박

현대상선은 최근 불거진 자본잠식 가능성과 유동성 악화 우려에 대해 반박함. 지난달 영구채 발행을 통해 1조원의 자본을 확충해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된 점을 강조함. 또 2020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 실현을 예상하며,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2020년부터 투입되면 원가개선을 전망함. (뉴스1)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검토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1월 3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3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1월 3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환)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